

사람을 바꾸면 광명이 바뀌는거다!

제22대 총선 광명(을) 예비후보

**양이원영** 보도자료



더불어  
**민주당**

(우)14248 경기도 광명시 법안로 1035, 603호(송화빌딩) | E. yangyi.assembly@gmail.com | 010-2651-8402(선거사무실)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24년 2월 6일 (화)
문의: 김창민 보좌관 (010-3918-1862)	기자회견문 : pp1~4 공약설명자료: pp5~8

**우리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 제2호 공약,  
생동하는 광명형 골목 경제 활성화**

**양이원영 예비후보,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한 제2호 공약 발표”**

**-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 및  
부채 경감 대책으로 광명시 골목경제 활성화 약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포함한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양이원영 예비후보는 광명시를 지역순환경제의 모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도시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광명형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두 공약은 광명시의 지역 경쟁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이원영 예비후보자는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우선조달, ▲지역화폐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및 우선조달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은 광명시 내에서 광명시 소상공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조달 추진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의원영 예비후보는 광명시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 등 구매력이 높은 앵커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순환경제 선도도시인 영국의 프렌스톤 시는 조달의 방향을 지역 사업체로 돌려 지방정부를 포함한 병원, 대학, 대기업 등이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를 계약 구매할 수 있는 상생형 조달 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역화폐예산은 2021년 1조2522억 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삭감돼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며 3천억으로 편성됐다. 이에 양의원영 비후보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의 촉진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앙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 현재 수준보다 1.5~2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의원영 예비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상권 브랜드 구축’ 지원도 약속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사람을 뜻한다. 기존 소상공인과 창의적인 지역 혁신가들의 협력을 통해 광명에서도 흥대 ‘서교동 독립 브랜드 상권’, 강릉 ‘커피 브랜드 상권’, 제주 ‘해녀의 부엌’, 강원 양양 ‘서피비치’, 광주 양림동 ‘펍권마을’ 같은 상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의원영 예비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브랜드 구축 사업’과 전국·지역 차원의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전문가를 적극 연결·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의원영 예비후보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결의안 발의를 통해 ‘소상공인 부채 경감 및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결의안은 추경을 통해 2024년 기준 3조 7천억 원 수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5천억 원 수준인 대환대출을 각각 최대 2배 수준인 7조 4천억 원,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 및 구제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다. 나아가 소상공인 대출 장기분할 상환 기간을 현재 수준보다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양의원영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광명시의 소상공인 기업수는 2019년 32,293개에서 2021년 36,14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

적인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평균 종사자수가 2019년 1.46명에서 1.4명으로 더욱 영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광명형 지역순환경제 및 소상공인 부채 경감과 경영 부담 완화 대책 수립을 통해 복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광명의 골목경제를 반드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의원영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역공약 제2호

### 우리 손으로 만드는 빛나는 광명 제2호 공약, 생동하는 광명형 골목 경제 활성화

**“광명형 소상공인 우선구매 · 우선조달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기반 구축하고, 소상공인 부채 경감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 1

- 소상공인 기업수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32,293개→2020년 34,068개→2021년 36,14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 2023)
- 광명시의 소상공인 기업 종사자수도 2019년 47,171명→2020년 48,346명→2021년 50,7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2023)
- 2021년 기준 광명시의 소상공인 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1.40명으로 경기 전체(1.45명)는 물론이고 전국(1.43명)보다 더 영세함. 2019년 1.46명, 2020년 1.42명으로 더욱 영세화됨 (중소벤처기업부, 2023)
-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장기적인 고물가 ·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은 맞고 있음
- “2024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경영성과는 73.4%가 ‘나쁨’이었으며, 응답자의 88.3%가 ‘힘들다’고 응답하였음 (소상공인연합회, 2024.01.)
- 2024년 경영성과 전망으로 74.8%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원인으로서는 ‘소비 심리 위축’ 71.2%, ‘금리 비용 상승’ 56.8%, ‘원가 상승’ 55.8%로 조사 (소상공인연합회, 2024.01.)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 경제는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삶의 터전임. 소상공인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

## 양이원영의 약속

지역 상생 조달구매 추진, 지역소상공인 대상 우선 구매, 우선 조달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  
 지역화폐 정부 지원 의무화와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소상공인 부채 경감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결의안 즉시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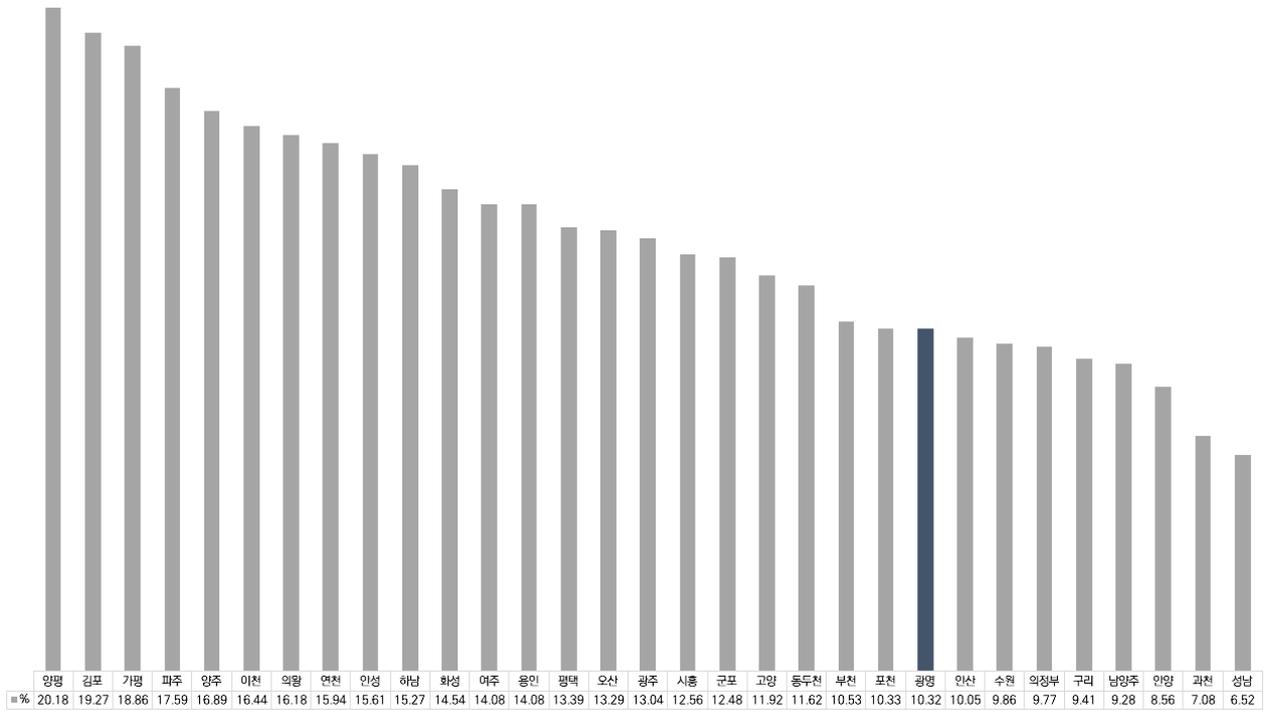
## 주요내용

## 1

## 지역 우선 구매 및 우선 조달 추진

- 협업을 통해 시청, 광명시 내 대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 · 대기업 · 중견기업 등 앵커기관과 MOU를 체결해 지역소상공인 대상 우선 구매 및 우선 조달 추진
- 지역순환경제 선도도시 영국 프레스턴 시는 조달의 방향을 지역 사업체로 돌려 지방정부를 포함한 앵커기관들이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를 계약 · 구매할 수 있는 상생형 조달 시스템 구축
- 프레스턴 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역 내 공급자가 입찰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응찰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고 간소한 방식을 개발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 구분이 없고, 민간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2022년 광명시의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세출결산 총액의 10% 수준으로 경기도 시군 중 23위 수준이며 경기도 시군 전체 12.3%에 못 미침

[ ]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2년 결산 총지출 대비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 구매 실적 비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365 홈페이지. (검색일: 2024. 1. 15.)

## 2 지역화폐 정부 지원 의무화와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 ‘ ’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정부가 5년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해 현재 수준보다 최대 1.5배~2배 지원할 수 있는 계획 의무화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

## 3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

- 광명시와 지역혁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 사람을 의미함

- 광명형 코디네이터형 로컬크리에이터는 기존 소상공인들의 재화와 서비스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사람을 의미함
- 광명시와 지역혁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로컬 브랜드 구축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 브랜드 구축 사업은 골목상권 내 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상호간의 사업아이템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해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임
- 양이원영이 광명시청, 광명의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골목경제 전문가들을 적극 연결하고 지원

[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

	로컬 브랜드 상권	내용
서초구	양재천 길 “살롱 in 양재”	양재천을 중심으로 재즈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품격 상권 조성
마포구	합마르뜨 “크리에이터 타운”	개성 넘치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모이는 골목길, 갤러리, 독립서점, 이색맛집 등의 차별화된 상권 조성
중구	장춘단길 “히스토리컬 시티”	남산을 중심으로한 태극당, 족발·냉면 등 전통상점을 중심으로 스토리 상권 조성
영등포구	선유로운 “선(善) 여유로운”	신선이 노닌다는 선유도를 중심으로 공방, 생태교실, 펫프리존 등 반려동물에게도 친화적인 상권 조성
구로구	오류버들 “정성스러운 일상”	버드나무길 중심으로 여행객의 쉼터였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 시장으로 자리잡은 오류권을 중심으로 동네 상권 조성

## 4 22 국회 개원 직후 중소기업인 부채 경감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결의안 즉시 발의

- 22대 국회 개원 직후 결의안 즉시 발의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 악화된 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 추경을 통해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3조7000억원), 대환대출(5,000억원) 1.5배~2배 확대안 포함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강화 방안 포함
-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억8,500만원 수준이며,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3,100만원으로 6년간 영업이익을 100% 투입해도 부채

## 불가능

- 자영업자 중 금융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2023년 11월 기준 6만3,649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
- 1년거치-4년상환 또는 2년거치 3년상환을 2년거치-8년상환 또는 4년거치 6년상환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방안 검토 및 포함

## 기대효과

- 광명형 지역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및 우선 조달 추진을 통해 민관 앵커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광명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을 통해 광명시의 지역 혁신 자원 발굴과 양성, 골목 경제의 창조력 확대와 상권 활성화 기대
- 국회결의안을 통해 중소기업 부채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추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확보

## 추진방안

- 광명시와 협업을 통해 시청, 광명시 내 대기업·공기업·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등 앵커기관과 MOU를 체결해 지역소상공인 대상 우선 구매 및 우선 조달 추진
- 광명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동네 단위 로컬 브랜드 구축을 위해 양의원영, 광명시, 전문가, 소상공인, 로컬혁신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과 운영
- 22대 국회 개원 이후 ‘중소상공인 부채 경감 및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결의안’ 발의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 **슬로건** 시민을 빛나게, 광명을 품격있게

- 광명의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주체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명시가 가진 도시의 양적, 질적 명성과 품격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음
- '시민을 빛나게'는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 차원과 커뮤니티 차원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
- '광명을 품격 있게'는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인 질을 높여 성숙하고 세련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